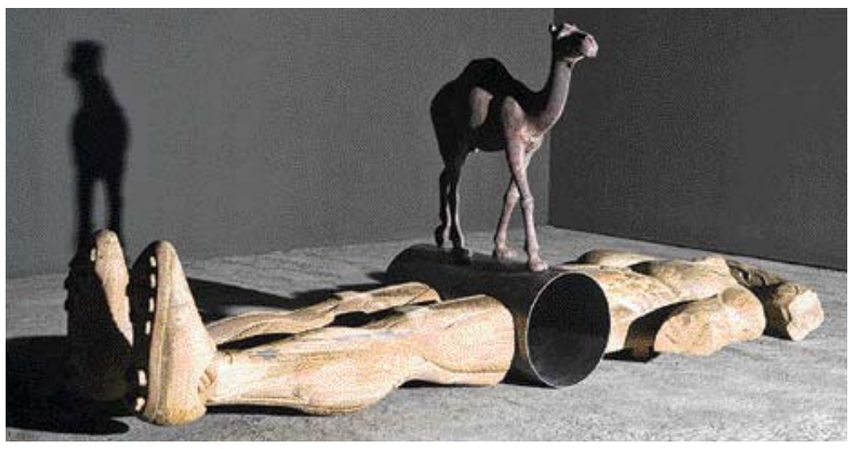
광주 첫 국제미술장터

'아트광주' 열린다



리야스 코무 작 '낙타'

박태후 작 '자연으로부터'

광주의 첫 국제 미술장터인 '2010 아트 광주'(9월1~5일·이하 아트 광주)가 9월1일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국내외 유명 갤러리 53곳이 참여해 280여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루벨 부부, 스위스의 울리직 등 국제 화단의 흐름을 좌우하는 '큰손'들도 대거 광주를 찾는다.

9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해외 23·국내 30개 갤러리 참여

또 일본 오사카미술관의 타데하타 아키라 관장, 모스크바 비엔날레의 조셉 박슈타인 감독 등의 전문가들이 아트광주에서 대담을 통해 '아시아 미술'을 진단하는 등 내실도 다진다.

참여갤러리는 영국의 리슨갤러리와 이탈리아의 컨티뉴아갤러리, 일본의 갤러리 토미오 코야마, 중국 탕갤러리 등 해외 갤러리 23곳과 박여숙 화랑, 예화랑, 이도화랑 등 국내 30곳이다. 광주 화랑으로는 나인갤러리, 상계갤러리, 갤러리자리아트, 예향화랑, 108갤러리가 참여한다.

참여 작가의 면면도 화려하다. 이탈리아의 콘티누아 갤러리는 프랑스의 다니엘 뷔렌과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작품을 출품한다.

세계 최고의 디자인갤러리로 불리는 멤피스는 알레산드로 멘디니와 에토레 솟사스 등 이탈리아의 두 거장을 비롯해 론 아라드와 카림 라시드 등 전시를 선보인다. 일본 토미오 코야마는 일본 최고의 블루칩 요시토모 나라, 그리고 베이징코뮨은 장 샤오강과 홍 하우 등을 출품한다.

최영훈 작 'dream of heaven'

북경의 탕 갤러리는 순유안과 펭유의 작품을, 베이징 코뮨은 송 동과 장 샤오강, 홍 하우 등을 내놓는다. 이탈리아의 콘티누아는 프랑스의 다니엘 뷔렌과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작품을 선사한다.

국내 화랑들도 선 굵은 작가들을 초대했다. 나인갤러리는 고근호·이이남·유수종·박태후씨를, 상계갤러리는 노정숙·서순례·이미경씨의 작품을 전시한다. 또 갤러리자리아트는 송필용·진시영·오창록씨를, 108갤러리는 구구김, 플로라정, 최규조, 정해인씨를 초청했다.

가나아트센터는 이환권과 배병우·백승우를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과 사진 등 그룹전을 준비했고, 세줄갤러리는 이경호, 박여숙화랑은 광주 작가인 허달재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인 만큼, 여타 아트페어와의 차별화를 위해 아시아 신진작가 초대전, 현대미술 거장전, 디자인 특별전 등 4개의 특별전도 곁들여진다.

아트 광주의 또 하나 특징은 현대미술과 디자인을 혼합하여 치르는 국제아트페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예술성과 조형성을 겸비한 현대디자인의 걸작들도 만날 수 있는 '디자인 특별전'은 눈여겨 봐야 할 기획이다.

한편 전문가 대담인 '토크 프로그램'은 오는 9월 2~4일 ▲아시아 미술시장의 오늘 ▲왜 아시아미술인가? ▲섬, 반도의 정치학과 미학 등을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 내에서 펼쳐진다. 문의 062-611-300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이색 퍼포먼스

9월 2일 잔치국수·막걸리 등 나눠먹기

로즈장 팝페라 공연·안은미 퍼포먼스

팝페라 가수 로즈장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의 개막식은 이색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로 펼쳐진다.

오는 2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 앞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개막식에는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인 강운태 광주시장, 청와대 진동섭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또 베니스비엔날레 비스 큐리거 총감독, 이번 전시 참여작가인 이데사 헨델레스, 마우리치오 카텔란, 신디 셔먼 등 유명 작가와 전문가들도 세계인 미술 축제의 개막을 축하한다.

광주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공식 개막 하루 전날 치러지는 이번 개막식은 다채로운 식전행사와 공연이 곁들여진다.

식전행사는 약 500명분의 잔치국수와 파전, 막걸리 등의 음식을 초청인사들이 나눠먹는 '식 퍼포먼스'로 치러진다.

또 음악앙상블 '바람곶'의 축하연주와 이번 비엔날레 홍보대사인 로즈장의 팝페라 축하공연, 전시 주제에 영감을 준 고은 시인의 축시, 안은미컴퍼니가 전시 주제인 만인보를 인용해 '광인보' 퍼포먼스 등을 펼친다. 문의 062-608-422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퐁네프의 연인들'

프랑스 영화제 '파리가 사랑한 배우'

9월1~7일 광주극장

'퐁네프…' 등 7편 상영

장 폴 벨몽드, 줄리엣 비노쉬, 카트린는 드 느브….

프랑스 대표 배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제 '파리가 사랑한 배우'가 9월1일부터 7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장 뤽 고다르가 메가폰을 잡고 장 폴 벨몽드가 주연을 맡은 '미치광이 삐에로'는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에 노미네이트됐던 작품. 아내에게 실증 난 주인공이 우연히 만난 젊은 여자와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며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줄리엣 비노쉬와 드니 라방이 주연을 맡은 '퐁네프의 연인들'은 프랑스의 천재 감독으로 각광받던 레오 카락스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화가였으나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미셸과 곡예사 알렉스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적인 여배우 잔 모로가 주연한 두 편의 작품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자크 드미 감독의 '천사들의 해안' 은행직원 장과 도박광 자키가 니스의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펼치는 사랑의 유희를 그린 작품이며 루이말의 감독의 '연인들'은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은 영화다.

그밖에 프랑스의 트뤼포 감독의 '부드러운 살결' '파리는 우리 것' 등 모두 7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택 시인 강연

내일 영상복합문화관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섬진강' '그 여자네 집'으로 유명한 김용택(62) 시인이 9월1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강연한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김용택 시인을 초청해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제 4회 찾아가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 김 시인은 '사람을 귀하게 가꾸어주는 글과 글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며,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섬진강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아 '섬진강 시인'으로도 불리는 김용택 시인은 1982년 창작과 비평사의 '21인 신작시집'에 시 '섬진강'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문의 062-350-2443.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